

데스크시각



송기등
예향부장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말이다.

최근 순천 기적의도서관을 찾았을 때 책가방을 맨 채 도서관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한 초등학생을 봤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텐데 학교가 끝나자마자 종종걸음으로 도서관에 들어서는 어린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열람실에는 기대거나 옆드린 채 편한 자세로 책 읽기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다. 어쩌면 독서를 어떤 목적으로 삼는 성인이나 청소년과 달리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책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저조한 독서량과 도서관 이용의 현저수를 파악할 수 있

‘책의 해’ 도서관이 미래다

다. 전국 17개 시도 성인 6000명과 초·중·고 학생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성인 8.3권, 학생 28.6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성인은 0.8권, 학생은 1.2권이 감소했다. 독서는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의미한다.

바쁘다 핑계 대지 말고

독서 시간은 성인 평균 23.4분, 주말 27.1분이었고, 청소년은 평균 49.4분, 주말 68.1분으로 조사됐다. 연간 종이책 구입량은 성인 4.1권(구입비 5만5000원), 학생 4.7권(구입비 4만3000원)이었다. 공공 도서관 이용 빈도는 성인 월 평균 0.5회(이용자 기준 2.5회), 학생 월 평균 1.9회(이용자 기준 3.1회)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연간 독서량(광주 7.1, 전남 6.1권)과 평균 독서 시간(광주 12.8, 전남 14.6분), 공공 도서관 이용률(전국 평균 22.2, 광주 13.5, 전남 8.9%) 등 주요 독서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일·공부 때문에 시간

이 없어서’와 ‘휴대전화나 인터넷 이용’,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를 꼽았다.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이 바빠서 시간 없음’과 ‘도서관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낌’을 들었다.

최근 예향의 기획 특집을 준비하면서 광주·전남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몇 곳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기사 작성을 위해 월 1-2회 3-5권씩 도서를 대출해 올 정도로 공공 도서관을 이용해 왔던 터였지만 이번엔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 본 후 그동안 도서관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도서관 환경이 맘에 들었다. 개가식 열람실의 분위기는 쾌적했다. 창 쪽으로 개인 책상과 스탠드가 놓여 있어 창밖 풍경을 보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남구)을 비롯해 이야기꽃 도서관(광산구),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서구) 등 도서관마다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 팩토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팬들의 착한 기부로 만들어진 ‘유노윤호 작은 도서관’이 있고, 나주 혁신도시에선 한국전력 스마트 도서관 ‘에너지(知)’가 있다.

광주·전남 공공 도서관은 각기 이용자

를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나의 도서관 회원증으로 또 도서관 책을 대출받거나(책 이음 서비스), 가입한 도서관으로 서울 중앙도서관 자료를 보낼 발을 수 있는(국가 상호 대차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있으며 전자책이나 DVD도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이 시험 공부나 취업 준비 또는 도서 대출만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든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책의 숲’ 거닐다 보면

흔히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 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 보라’고 말한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다. 올 7월부터는 개인의 도서 구입비(연간 100만 원)에 대해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틈을 내 집에서 가까운 공공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찾아보자. 굳이 어떤 목적 없이 ‘책의 숲’을 거닐다 보면 일과 스마트폰에 밀려 손을 놓아 버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북미 관계가 갈지자결음을 하고 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지난해의 험악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는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해법을 알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체결 등이 그것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살아 싸움 그만하고 정쟁사항들에 대해 빨리 일괄 타결하기 바란다.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지위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일 문제는 어떻게 될까? 통일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 민족의 번영과 민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이다. 이 목표에서 정치적 통일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문화적·민족적 동질성 유지와 교류 협력을 통한 공생공영도 통일을 향한 답이 될 수 있다.

기고



김길남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 사랑’ 운영자

광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을 떠올린다. 광주만큼 크고 웅장한 산을 품고 있는 도시는 없다고 한다. 무등산에는 둘레길이 있다. 서석대와 입석대가 있다. 전통 사찰 중심사와 원효사를 품고 있다.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과 한국 서양화의 1세대인 오지호 님의 자취도 남아 있다. 산 아래에는 맛 집도 몰려있어서 찾는 이들이 많다.

무등산은 올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무등산은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로 우뚝 설 것이다. 한편 무등산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심점이나 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무등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학동삼거리에 있는 허백련 선생님 동상을 무

남북 관계, 절반의 통일론에 답이 있다

동방 정적으로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총리는 동서독인들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나가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은 달성되는 것이냐다를 물었다. 대다수 서독인들은 이런 주장에 공감했고, 그 결과 서독인들은 정치적 통일을 역사에 맡긴 채 우선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에 집중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서독인들의 동독(동베를린 포함) 방문은 많을 경우 연간 700만 명에 이르렀고 동독인들의 서독(서베를린 포함) 방문도 500만 명에 이를 때가 있었다. 동서독인들 사이에는 전화 통화와 TV 시청도 언제나 가능해졌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은 이루어진 것이냐 다물었다고 보아야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의 정치적 통일은 이런 배경이 토대가 되었다.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는 절반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남북이 교류 협력하고 공존공영하면서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우 독일과 똑같은 방식의 교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몇 백

명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도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며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나가기 하는가? 다행히 우리의 통일 원심력은 독일보다 훨씬 강하다. 독일은 1870년 통일 국가를 구성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천년 이상 하나의 국가 밑에서 살았고 이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강한 통일 욕구를 갖게 해주었다.

물론 이런 정도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다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나 통일이라는 목표가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갈 수 있다. 당연히 우리 식의 민족 동질성 유지 및 교류 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국제스포츠 행사에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나 단일팀을 출전시키는 일은 독일 일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식의 ‘하나 되기’ 방식도 있다.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절반의 통일을 이룬다는 자세로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민족 동질성 유지를 위해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들이다. 미

래의 통일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당장 통일이 필요하다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의 국가로 살아 온 우리 역사의 특수성, 남북한이 하나 되기 운동을 했을 때의 이점 등을 차분히 인식시키는 방식이 더 좋다. 통일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에 북한 역사 탐방이 있다.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국토 사랑,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안겨줄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고 흡수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 식의 대결을 부추기지만 문화적 통일은 다르다. 남북한 모두 정치 통일이 아닌 문화적 통일을 당면 과제로 설정할 경우 당장 실현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등 민간한 정치적 문제의 해법 찾기 외에 문화적·민족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당면 과제를 민족 동질성 유지를 통한 절반의 통일로 설정하고 좀 더 여유있게, 그리고 원대한 자세로 하나 되기 운동을 전개하자.

무등산 바람 소리에 실어 보내는 이야기

등산 국립공원 표지서 부근으로 올기면 어떨까? 현재의 위치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동상을 의재 미술관 입구 또는 춘천현으로 옮겨도 좋을 것이다.

금곡동에 있는 분청사기 전시장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한다. 강진군이 축제를 열고 토요 장터를 여는 등 정자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 비하면 광주의 분청사기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광주 분청사기는 그 역사성이나 예술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주변에는 도자기 체험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오지호 선생의 미술관을 더 크게 만들고 작품도 늘렸으면 좋겠다. 오지호 선생만 아니라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더 많이 모셔오면 좋겠다. 예술가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긴 작품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무등산 그 곁에 무진고성이 있는데, 들머리에 크지는 않더라도 성문을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다. 무등산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이미지와 함께 광주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설을 몇 가지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평생 천 번도 넘게 무등산을 올랐던 시인, 무등산의 시인으로 불리던 범대순 시인의 동상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동상은 무등산의 경관을 고려해서 산 아래쪽 한적한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코스를 개발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무등산의 품에서 야영도 하고 트레킹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오리엔티어링 코스는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무등산 둘레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무등산 아래에 공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크고 요란스러운 공원 말고 산책도 하고 담화도 나눌 수 있는 공원, 깔끔하고 세소리 바람소리가 있는 조용한 시민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등산 자락 적당한 곳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 식물원에는 무등산에 살고 있는 식물을 중심으로 내 고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초대해 놓고 자연 학습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무등산은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무등산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이야기 했다. 사실 이런 제안들은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년부터 반향을 살지도 모르겠다. ‘천년을 넘어 불어오는 무등산 계곡의 바람 소리 하나면 그만이지 무슨 시설이 필요한 말인가?’라고 말하는 시민, 산을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무등산에 대한 나의 제안들이 알맹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껍데기를 덧씌우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 시설이 많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코펜하겐은 인어공주 상 하나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전주도 한옥마을 하나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되었다. 한옥 마을은 역사성 위에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지혜가 집약된 곳이라서 눈길을 끈다. 광주도 유구한 역사와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다. 무등산, 더 나아가 사랑스런 도시 빛고을의 광주다움을 찾고 보전하기 위한 밑거름을 점검할 때다.

社說

‘부실 경영’ 광산구시설공단 개혁 절실하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책임을 맡고 있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잔여 임기 보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경우 법적 임기가 3년으로 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30일 취임한 만큼 오는 2020년 7월 30일까지가 임기다. 현재 잔여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일까.

그것은 공기업 경영 평가와 관련이 있다. 2016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전국 37개 자치구 공기업 평가’에서 ‘마’ 등급으로 전국 자치구 시설공단 37곳 중 37위를 기록,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평가가 따르면 공단 사업 수입은 2016년 19억9천500만원에서 20억6천600만

원으로 3.53% 늘었으나 청소 업무 인건비 증가로 실제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 3.7% 감소했고 대행사업비 지출도 132억400만원에서 139억5천200만원으로 5.66% 증가했다. 공단 예산 중 시설안전 예산이 1.5%에 불과해 노후시설에 대한 수선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고객만족도 역시 77.05점으로 2016년 대비 2.62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한다. 지난해 민행매 전 광산구청장 재직 당시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현 이사장을 교체하고 이제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광산구의회 배홍석 의장은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집행부 측에 이사장 교체를 강력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책임자 교체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공단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국회 내년 예산 심의 이것만은 꼭 고려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예산안에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반영시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전북도는 그제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내년에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대회임에도 과거 다른 대회에 비해 국비는 ‘절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증액을 요청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전남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이 국가 계획에 누락돼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한전공대 설립 및 스마트팜 조성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아울러 호남 지역 SOC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지역 특성이나 발전 잠재력을 외면한 채 경제적 타당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말이 묶여 제동이 걸린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과 인공라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 구조도 취약해지고 인구 감소로 낙후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배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온 호남 예산을 이제는 복원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와 역할이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無等鼓

동양 문화권에서 개 식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자치구 위린시에서는 매년 하지를 시작으로 열흘간 개고기 축제가 열린다. 올해도 지난 6월 21일부터 열린 축제 기간 동안 1만여 마리의 개가 도축돼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동물 보호 단체는 악습이라며 당장 폐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전통 축제라며 맞선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산 정약종조차 축산도로 유배 간 행 정약전

가축 아닌 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축에게 개고기의 영양성을 높여 평가해 권했을 정도로 즐겨 먹는 사람이 많았지만 영조 때 암행어사로 유명한 이종성처럼 ‘사람이 어찌 개를 먹을 수 있는가’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올림픽 등 국제 대회를 치르면서 한국인들의 개 식용 문화가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자 보신탕이란 이름이 사철탕이나 영양탕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뒷골목으로 몰려났다. 하지만 개고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개 식용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개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개 또한 소·돼지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농경 사회에서 가족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로 언제든 식용으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현행 법에서도 개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해서 일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며칠 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축에게 개고기의 영양성을 높여 평가해 권했을 정도로 즐겨 먹는 사람은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애완동물 1000만 시대에 개를 식용으로 가능한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일은 말복이다. 동물 보호 단체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된다고 한다. 보양식으로 다 큰 먹을 것도 많은 시대에 꼭 개고기를 찾는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장필수 전남부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6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